

# 임실 봄의 향연 옥정호에 물들다 14개국 1700여명 선수단 모인다

###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 역대 최대 인파 기록... 이틀간 3만8000여명 다녀가

2026 임실옥정호 벚꽃축제가 벚꽃 만개와 맞물려 전국 각지에서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리며 대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총 3만8,000여명이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3만5,000여명에서 3,000여명이 증가, 9%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출렁다리 개방 이후 열린 벚꽃 축제 개최 이래 가장 많은 기록이다.

또한,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 봄여섯 생태공원을 찾은 유료 입장객도 크게 늘었다. 첫날인 11일에는 5,700여명, 둘째날 12일에는 7,400여명 등 총 1만3,000여명이 입장했으며, 이에 따른 입장수입만 약 4,000만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축제장 내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 등 운영매출 또한 호조를 보였다. 치즈볼, 피자 등 트렌디한 메뉴를 앞세운 먹거리 부스는 방문객들의 큰 호응 속에 완판 행진을 이어갔으며, 임실N치즈 및 유제품 판매 부스 역시 문전성시를 이루며 지역 농가 수익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같은 성공 배경에는 지난 해 벚꽃이 피기 전 예뻐던 것과는 달리 벚꽃이 만개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해 축제 날짜를 잡은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홍보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방송과 언론, SNS 등을 통한 사전 홍보



2026 임실옥정호 벚꽃축제가 벚꽃 만개와 맞물려 전국 각지에서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리며 대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와 현장홍보까지 더해지며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색적이면서 짜임새 있는 공연과 체험, 참여형 콘텐츠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입소문으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첫날에는 퓨전국악, 재즈밴드, K-POP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개막 축하공연에는 미스터트롯3 우승자 김용빈을 비롯해 홍성윤, 남승민, 채운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축제 열기를 끌어올렸다.

둘째날에는 펑크밴드와 타악 퍼포먼스 공연이 이어, 지역 실력자들이 가창력을 뽐낸 '옥정호 벚꽃 가요제'가 진행돼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펼쳐진 수준높은 가창력의 무대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체험프로그램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8개의 플라마켓과 6가지 체험존에서는 벚꽃 향수 만들기 등이 진행되었으며, 경성 의상 대여 서비스와 추억의 포토존을 통한 '인생샷'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해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임실 치즈볼과 구워먹는 치즈, 치즈붕어빵과 피자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메뉴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편의성을 고려한 여유로운 휴식공간 마련으로 아이 또는 어르신 동반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올해는 반려가족을 위한 '펫투어'에 73마리의 반려견과 함께한 136명의 견주가족들이 함께해 반려동물 수준높은 가창력의 무대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 16-21일 개최

남원시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종합스포츠타운에서 롤러스포츠 종합 국제대회인 '2026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가 열린다.

올해로 19년 차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14개국에서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 특히 해외선수단 규모가 400여 명에 달해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을 증명할 전망이다.

이 대회는 남원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남원시체육회와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 주최하며, 전북 및 남원시 롤러스포츠연맹이 공동 주관해 내실 있게 운영된다.

경기는 종목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하는 스피드트랙 경기가 16일부터 나흘간 초동부에서 일반부까지 폭넓게 펼쳐지며, 17일부터는 인라인 하키(5일간)와 인라인 프리스타일(3일간) 경기가 이어진다. 또한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선보이는 아티스틱 종목은 18일부터 이틀간, 박진감 넘치는 스피드로드 경기는 20일부터 이틀간 각각 치러진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주말 기간에는 개최식을 시작으로 스피드트랙, 하키, 프리스타일, 아티스틱 등 4개 종목이 각 경기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선보이는 탁월한 경기력과 롤러스포츠 특유의 역동적인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가족센터,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운영

남원시가족센터가 지역 주민과 결혼이주여성이 문화 활동을 통해 교류하는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문화를 누리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월 27일 시작된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 사업은 지역민과 다문화가정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어울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 센터는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상호이해와 통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춘향 라인댄스 △해피건강댄스 △고고장구 △감보디아 모국춤 총 4개 과정으로 구성,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신체활동과 문화 체험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감보디아 모국춤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민의 상호문화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가족센터 지역공동체팀(063-635-5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욱 남원시 여성가족과장은 "지역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활력을 찾길 바란다면, 앞으로도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순창군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년도 카드 매출액 일부를 지원해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년도와 신청 연도 모두 순창군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도매 및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함께 팩스 및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 중동발 고유가 대응 비상체제 가동

### 순창군, 긴급 회의 열고 협업 체계 강화

순창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군은 13일 포괄적 순창부군수 주재로 농업, 의료, 복지, 경제, 기업 등 주요 분야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열고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유가 상승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종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군은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유류비 상승이 농가 경영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비료 수급의 경우 지역농협의 사전 예약구매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다 시비 관행 개선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를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 조사료 비닐 사용량 절감 등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 포장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군은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농가 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주요 의료물품을 평균 사용량 기준



약 6개월분 확보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필수품인 쓰레기봉투 역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공급에 차질이 없는 상태다.

기업 분야에서는 포장재 수급 불안과 물류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울러 '1기급 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기업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야외활동이 빈번해지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보유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쯤쯤가무시증이 발생한다.

특히 SFTS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높아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집중 홍보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공식 SNS 채널과 관내 주요 전광판을 활용해 예방 수칙을 알리고 있으며, 농업 종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고 다국어 리플릿을 활용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어르신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불용농기계 현장 경매 추진

임실군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용·관리하는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대상으로 관내 농업인들에게 현장 경매를 추진한다.

매각 농기계는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총 49대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임실읍 봉황로 371)에서 현장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참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개찰은 해당일 오후 3시 20분에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임실군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등록 필지를 둔 농업인으로, 1인당 2대 이하로 투찰이 제한되며 대리입찰은 불가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향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못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